

“제2공항 추진” 후폭풍... 도정·의회 경색

좌남수 의장, 고영권 정무부지사 불러 전날 회견 항의
 “의회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정치 혼자 하나” 맹비난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 “권한 남용 원 지사 사퇴를”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이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밝힌 원회용 제주 지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은 도지사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의회와 도정의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11일 고영권 정무 부지사를 의장실로 불러 의회와 협의 없이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좌 의장은 고 부지사와 약속을 하고 난 뒤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원 지사가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기자회견문 2~3장짜리로 도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어 세웠다.

고 부지사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내용이 어떻든 날짜에 맞춰 (회신)공문을 보내야 했다”고 말하자, 좌 의장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냐”며 “(국토부가) 내라고 해서 냈다? 무슨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좌 의장은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후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거론하며 “전날

기자회견은 의회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면서 “원 지사가 독재적이고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의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원 지사는 정치를 혼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좌 의장은 “제2공항을 추진하느

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사회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부터 오로지 도지사의 몫”이라고 했다. 좌 의장의 계속된 항의에 고 부지사는 “의견을 잘 새기고 의회, 도민과 소통해 갈등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몸을 숙였다.

의회 내부에선 도지사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소속 박원철·홍명환 도의원은 이날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감정과 도민 갈등을 부추긴 원 지사

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성산 주민 찬성 비율이 높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편입되는 신산, 난산, 수산마을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들은 “원 지사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3개 마을의 찬반 의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며 “구체적인 찬반 비율을 공개하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공개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1일 의장실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제2공항 정상 추진’ 계획 발표와 관련 강력 항의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기업 선정 도, 제품개발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JTP)를 통한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6개 과제·4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기업지원 사업은 7억2000만 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

관 산업, 지역 취약계층 관련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판로 개척, 마케팅 등 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1차 사업자 선정에 6개 과제·35개 기업을 모집했으며, 총 91개 기업이 참여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35개 기업을 모

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1차 사업자로 6개 과제·42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5억 5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수요 맞춤형 창업기업 육성 지원 7개사·1억3550만원 ▷수요 맞춤형 성장기업 육성 지원 10개사·1억6400만원 ▷수요 맞춤형 취약계층기업 육성 지원 4개사·9000만원 ▷개별 수출패키지 등

합 지원 5개사·5000만원 ▷국내 라이브커머스 홍보 지원 13개사·2700만원 ▷해외 라이브커머스 홍보 지원 3개사·2700만원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6개사를 지원해 502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창업한 사례도 3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기업 수 3개사와 신규 고용창출 82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도, 오는 18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까지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투명 페트 병도 분리배출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리배출·자원순환 실천 운동 등을 통해 도민이 스스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비영리법인·단체를 대

상으로 사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 주도의 재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시민단체가 주도해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직접 조사, 공유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도민이 주도적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연안생태계 회복 위해 수산자원 조성

도, 인공어초·해중림 조성 등 4개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연안어장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회복·증대를 토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 및 갯녹음 어장복원 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및 해중림 조성, 연안바다목장 조성,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16개 지선·244ha)에 81억 원 ▷효율적인 어초어장 관리를 위한 어초어장 관리사업(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2022년 시설 예정지 적지조사 등)에 12억 원을 투자한다.

또 갯녹음 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으로 제주연안 생태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해중림 조성(16ha·안덕 사계해역)에 12억 원 ▷해역 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연안바다목장사업(1개 해역·추주대서해역)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1읍·면 1광역 어초어장 조성 3개년 계획(2020~2022년)에 의해 기존시설 중심의 대규모 집단화 시설로 어류위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연안어업인들이 어초어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인공어초 선정을 위해 인공어초 효과조사 및 설치상태조사(설치 후 2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를 세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 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이 좋지 않은 해역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추주대서해역(2018~2022년)에 대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및 지역어업인들의 의견 등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사업별 최종 수혜자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용관리 및 성과 확보에 추진 방향을 맞춰 나가겠다”며 “어장관리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어장관리 체계를 구축, 자기어장에 대한 자율적 어장관리를 통한 자원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설치해 보세요!

각종행사장/개업식/집들이/야외휴게공간설치
 주차장용/야외음식점 및 호텔 및 펜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각종 천막 탁자 의자 판매 임대
 몽골천막, 자바라천막, 창고형천막

각종행사 단체식사 주문 환영
 한식, 일식, 양식 등

종합이벤트

한라기획

(주)카라반 제주총판, (주)대원레저 제주총판
 몽골천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즉대지비배우전문)

대표 김 봉 근

- 사무실 : 744-6688 제주시 공방매길 116 (아라1동)
- FAX : 749-8668 • jejuhanla@daum.net
- H·P : 010-2623-6688